

멕시코 농촌지역의 송금과 정치경제적 변화*

주종택**

단독/순천향대학교

Joo, Jong-Taick (2019), "Remittances in Rural Mexico and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BSTRACT

Mexico is sending many migrant workers to the United States. As the number of migrants increases every year, the amount of remittances rises as well. Moreover, in rural Mexico, where economic resources are insufficient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not high, remittances have a very important economic significance. These remittances help solve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society sending migrants, affecting many other aspects of the society. The wealth introduced from the outside leads to a wide range of sociocultural influences, such as making people change their lifestyles and affecting their beliefs and values. Meanwhile, the large-scale flow of remittances also transforms the existing economic strata within the society, while also affecting the political structure.

The remittances also have a very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village. Social changes related to remittances often require a new type of leadership system, inducing inequality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Now, people who acquire enough cash from remittances can have an effect on economic activities such as consumption patterns and jobs. This changes the social class structure and, in addition, the process and outcome of choosing a leader of the society, which often causes conflicts over these issues. For example, those who secure economic wealth through remittances also express interest in political activities, presenting new political ideologies such as participation, pluralization and representation to gain political power. Such a process can lead to political change, including inducing a new political leader and political structure.

Such changes could weak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actices that existed in the past, while at the same time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new political force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flicts. A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 Jong-Taick Joo is professor of Global Culture Industry at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jtjoo@sch.ac.kr).

such, the new elite group which emerged in the wake of migration and remittances could compete with or confront the classes that used to exert influence in the region, including the cacique. Using the traditional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 those who used to exert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within the village gradually felt threatened. In addition, unlike in the past, they are in confrontation with people involved i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who are engaged in new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while maintaining new lifestyles and values. Through this process, migration and remittances have led to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rural Mexico, transforming the political structure.

Key Words: Mexico,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migrant workers, remittances, sociocultural changes,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political structures

서론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국제노동이주자들이 미국에서 얻은 송금을 멕시코로 보내고 있다. 이런 송금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멕시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 혹은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인접해 있어서 멕시코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아서 이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런 까닭으로 멕시코는 미국으로 많은 이주자를 보내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The World Bank 2008, 3). 이주자의 수와 이주 방법 등은 미국의 이주정책과 미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소 변화가 있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Joo 2013, 83-116).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르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규제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을 완전하게 통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는 멕시코의 이주노동자들은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주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하면서 대응해오고 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주자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이주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에 새로운 장벽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장벽을 보강하고, 국경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주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멕시코는 상당한 수의 이주자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하는 이주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¹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Calderón et al. 2008, 89). 또한 해마다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송금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Acosta et al. 2008, 27). 해외의 이주자들이 보내주는 송금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한다는(Combes and Ebeke 2011, 1086) 점에서, 멕시코 사회에서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무시하지 못할 역할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송금을 활용하여 잘못된 국가의 정책이나 외부의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정, 또는 자연재해나 농산물에 관련된 시장의 변화 등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처럼 경제적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에서 노동이주의 결과로 얻어지는 송금은 대단히 안정적인 경제적 수단 중의 하나이다.

멕시코에서 ‘미그라돌라레스’(migradólars)라고 불리는 송금은 액수가 적지 않아서 송금의 다양한 역할과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농업생산성이 높지 않은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 송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Hamilton et al. 2003, 435). 특히 경작 가능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토지의 질도 좋지 않고, 농업생산을 위한 자본과 기술도 별로 없으며, 불충분한 교통시설 때문에 생산된 작물을

1 ‘송금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부치는 행위와, ‘보내는 돈’을 모두 일컫는다. 이 글에서도 두 가지 개념 모두를 ‘송금’으로 사용한다.

상품화하기도 수월하지 않은 멕시코의 남부지역은 경제적으로 송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다. 멕시코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멕시코의 다른 도시들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또 미국에 비해 급료 수준도 낮아서 국내로의 이주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멕시코의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고향 마을과 훨씬 자주 접촉하고 있다. 이주자들은 종종 자신이 살았던 사회를 방문하여 마을의 행사에 참여하고 경제적 지원도 한다(Cohen 2004, 145). 이런 까닭으로 이주자들의 송금이 멕시코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송금이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한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경제적 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게 만들고 신념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도한다. 한편 대규모의 송금의 흐름은 사회 내부의 기존의 경제적 계층도 변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주자의 수가 많고 송금의 규모도 커지는 가난한 농촌지역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송금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변화를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이주와 송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농촌사회에서 해외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은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금은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주자가 속한 사회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Trager 2005, 29). 그렇기 때문에 송금의 규모와 시기, 용도 등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송금이 경제적 영역에서 활용되는 형식에 따라 송금의 영향을 경제적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다. 송금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송금의 기능을 항상 바람직하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즉, 송금의 역할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사회에서 주기적인 송금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Sowell 1996, 21).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송금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다. 송금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고,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Adams and Page 2005; Fajnzylber and López 2008, 2; Malkin 2004, 81; Parrado 2004, 79; Pérez 2005, 68; Wong et al. 2007, 138-139). 이런 관점에서 송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상승시켜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송금의 생산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소비생활에 사용하고 남은 송금은 토지나 농기구를 구입하거나 농촌산업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구입하는 등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송금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송금은 부정적인 경제적 변화를 이끌거나 강화하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상당한 규모의 송금이 일부의 가구에 집중되면서 사회의 소비와 생산 활동에 충격을 주어 기존의 경제적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이다(Burrell 2005, 20; Gammage 2006, 93). 즉, 이주노동자를 둔 가구들이 송금에 의존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생산 활동을 등한시하고 소비수준을 높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불평등이 등장한다. 심지어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불평등의 확산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의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물가가 상승하여 이주노동자를 두지 않은 가구에서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경제는 완전히 송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

송금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수적으로 사회적 변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송금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겨 소비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생활을 좀 더 자주 즐기게 되면서 기존의 생활방식이 변화된다. 게다가 이주자나 이주자를 둔 가구의 구성원들은 기존의 사회가 지니고 있던 가치관과 규범, 전통에 얽매이기 보다는 새로운 이념이나 관습을 보다 용이하게 수용하며

(Martin et al. 2006, 75), 다른 나라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사회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Gmelch 1992, 302). 이런 현상은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와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 사이에 초국가적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송금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상품, 아이디어, 정보, 지식등 사회적, 정치적 자본도 함께 교환되고 있다(Chierici 2004, 49). 이렇듯 송금으로 발생한 경제적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켜서 사회의 다른 분야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송금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으로 사회적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송금은 지역사회의 정치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송금과 관련된 사회변화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불평등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지도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Binford 2003, 307).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에는 토지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송금으로 인해 현금을 소유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형태와 직업 등 경제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계층이 뒤바뀌게 되고(Bracking 2003, 634), 이와 더불어 사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과 결과도 변화하면서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송금을 통해 경제적 부를 확보한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와 다원화, 대표성 등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시하면서 정치행위에도 관심을 표명한다(Chiu and Gutiérrez 2007, 149). 이런 과정은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정치구조를 유도하는 등 정치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특히 원주민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독특한 정치구조를 유지했던 멕시코 남부의 농촌지역은 송금으로 인해 정치적인 변화를 겪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만 송금이 초래하는 정치적 영향은 사회의 여러 조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조사지와 조사방법

멕시코에서 국제노동이주와 송금에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려면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가 일찍 시작되었고 지금도 꾸준하게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아하카 지역은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국제노동이주자가 존재하며, 특히 오아하카의 농촌지역은 이주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주자들의 송금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사지로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오아하카 주는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 인구가 많은 도시가 부족해서 산업생산이 빈약한 지역이다. 게다가 농업생산을 위한 토지도 부족하고 토지의 생산성도 높지 않아서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까닭으로 매우 오래전부터 오아하카의 주민들은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정부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1942년부터 브라세로(bracero) 계획을 실시하자 많은 오아하카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었다. 이 당시에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불법이주노동자들도 오아하카를 떠났다. 1964년 브라세로 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불법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어 농촌 경제가 침체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주 대열에 가담했다.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중앙에 위치한 ‘산 후안 델 에스타도’(San Juan del Estado)라는 무니시피오(municipio)이다. ‘산 후안 델 에스타도’는 원주민어를 사용하지 않는 메스티소(mestizo) 마을로서, 오아하카 시로부터 북서쪽으로 27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서 오아하카 시까지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Pan American Highway) 등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도 비교적 편리하다. 수시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오아하카 시내에 나가 상업 등의 경제활동을 한다. 또한 오아하카 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오아하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마을과의 교류가 빈번하고 외부사회의 영향도 적지 않다. 2015년 센서스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지의 인구는 2,592명에 가구 수는 684이다.

이 마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노동이주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그 후 점차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났다. 1990년대 초까지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주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이주자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국경을 넘는 비용이 감소하고 위험부담이 줄어들자 나이가 든 사람들도 이주에 참여하는 등 이주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주의 유형도 바뀌어 개인중심에서 가족중심의 이주로 변화되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미국 서부 지역에 이 마을과 오아하카 인근 마을 출신의 이주자들이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이주가 훨씬 용이해졌다. 지금은 이주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의지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국경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주의 시기와 방식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멕시코에서는 무니시피오 단위의 국제노동이주자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국제노동이주자의 수를 알기는 어렵다. 더욱이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는 이주자도 있고, 이주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주자의 수를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대략 1,200-1,500명 정도의 이주자가 미국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오래 전에 가구 전체가 미국으로 가서 마을 사람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 전체 가구의 약 2/3가 이주노동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이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송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송금이 이주자를 둔 가구의 생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 반면, 이제는 송금에 완전히 의존해서 생활하는 가구가 상당한 수로 늘어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송금이 마을과 가구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지에 관한 기초적 자료는 1993년부터 주기적으로 수집되었는데, 특히 2005년 7월과 8월, 그리고 2006년 1월과 2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가 일부 사용되었다. 면접 등 이번 연구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료는 모두 2019년 1월에 획득되었다. 조사는 이주 후에 마을에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주자를 둔 가구의 구성원들과 미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잠시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면접과 설문조사, 그리고 참여관찰이 병행되었다. 그밖에 이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마을 관리들을 상대로 이주에 관한 공식 또는 비공식 면접이 실시되었다.

조사지의 국제노동이주와 송금

다른 오아하카의 마을들처럼 조사지에서도 국제노동이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송금의 혜택을 보는 가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오아하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빈곤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송금의 대부분이 농촌지역 가구의 생계활동에 사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Joo 2009, 105-113). 다른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입과 비교해서 송금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가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Eversole 2005, 300; Näämi and Özden 2008, 69). 결과적으로 송금 덕분에 이주자를 둔 가구의 생활수준이 안정되거나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조사지에서도 이제는 송금에 의존하는 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의 2/3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이 없으면 마을의 경제활동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지의 경우도 멕시코나 다른 개발도상국의 국제노동이주 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대부분의 송금이 가구의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이용되고 있다. 상당수의 이주자 가구는 송금이 존재하기 전부터 생계를 유지하기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서는 당연히 송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지에서도 송금이 소비생활을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유는 농업생산이 자급자족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작물의 수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리답을 소유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농경지의 규모는 매우 작아서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은 송금을 이용해서 수리답을 구입한 가구가 생기면서 전체 이주자 가구의 절반 정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일을 하러 떠난 상황이라 농업생산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다.

생계 문제를 해결한 후 송금을 교육과 보건의로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자녀들을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게 하거나 미국으로 국제노동이주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고교과정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판단에서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법 노동이주자들도 미성년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송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향에 남겨진 이주자들의 부모도 고령화되어 치료해야 할 질병이나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제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주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고 이주자의 송금이 늘어나면서 소비생활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가전제품, 공산품,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먼저 이주자를 둔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송금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집을 새로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사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주자를 두고 있는 가구의 2/3는 집을 새로 짓거나 보수를 했고, 나머지 가구들도 대부분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1990년대까지는 새로 지은 집을 통해 이주의 효과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주자의 송금으로 집을 짓다가 송금이 중단되거나, 이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짓다가 그만 둔 집도 여러 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이주자 가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현재 전체 이주자 가구의 약 1/10인 40가구에서 송금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송금으로 얻어진 부를 과시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다. 지금은 새로 지은 집이 너무 흔해져서 자동차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실제로 마을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로 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비재의 구입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한 마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점들이 마을의 중심거리에 자리 잡았다. 마을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주자 가구가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에 마을 내에서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보다는 송금 수입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진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송금은 지역사회에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사회계층의 변화

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농지가 전혀 없거나, 혹은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가구에 속한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새로운 부유층으로 탈바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Joo 2007, 110-111).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토지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서 마을 내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농업노동자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획득한 부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과시적 소비에도 더욱 치중한다. 이제는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져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마을의 전통적인 위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어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마을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주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가난해서 생활에 여유가 없던 사람들도 이제는 송금을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 좋은 집, 자동차, 각종 가전제품, 새로운 스타일의 옷, 여러 생활용품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여 기존의 마을 사람들과 차별화된 생활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송금액이 많은 가구들은 상당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마을 내의 상점 주인들도 무시하지 못할 고객이다. 요약하면, 송금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과거와는 상이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차이가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농지나 가축을 많이 소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로 경제적 계층이 구분되었으나, 지금은 송금 수입이 많은 가구와 송금이 매우 적거나 없는 가구로 구분된다.

송금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경우는 아직도 많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노동이주로 2명 이상의 많은 가구원을 오래 전에 미국에 보낸 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소비분야에 쓰고 남은 송금을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한다. 이주자가 많은 가구의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을 많이 미국에 보내면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유리한 실정이다. 물론 이주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송금액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주자가 많고, 오래되었으며, 송금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송금액수가 평균보다 많은 경우에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여력이 발생한다. 남은 송금은 주로 농지나 가축, 농기계 등을 사거나 상점들을 구입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송금으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오아하카 시내에서 식당이나 상점 등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가구도 존재한다.

지금은 이주자를 두고 있는 가구의 약 1/4이 생산적인 부분에 송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송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생산적인 분야에 쓰이는 송금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여 가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송금이 소비재의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송금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여 소득을 올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자를 보낸 가구에서 살펴보면, 아직 자금도 충분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시작할 기술이나 정보도 넉넉하지 않으며, 지역의 시장도 크지 않아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주자 가구와 송금의 사회적 역할

미국으로의 노동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세기 말에는 이주자들이 보낸 대부분의 송금이 가구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활동에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주자를 둔 가구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주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상황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전체 마을 사람 중에 국제노동이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멕시코를 떠나 미국으로 일을 하러 가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핵가족을 넘어서 확대가족들과도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기 때문에(Glick 1999, 751), 실제로 이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과정에서 마을의 경제활동이 송금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들에 의존하는 실정이 되면서 송금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주자들이 소수일 때에는 이주자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이주자를 둔 가구의 구성원들이 행동을 조심하며 마을 내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주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자 가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마을의 정치적인 구조도 국제노동이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이다.

송금을 받는 이주자 가구는 초기에는 카르고(cargo)² 제도, 축제 등 사회문화적 분야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송금이 이주자 가족들이 마을의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데 활용되고, 또 마을의 주요한 행사를 후원하는 데 이용되면서, 송금이 마을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송금과 관련된 영역은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축제를 담당하는 종교적 카르고인 마요르도미아(mayordomía)이다(Joo 2012, 39-42). 이주자나 이주자의 가족은 송금을 이용하여 성인 남성들의 전통적인 공적 의무인 카르고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요르도미아이다. 공민적 카르고는 직접 본인이 시간을 내어 마을과 관련된 업무를 1년 동안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마요르도미아는 돈을 내면 본인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가족 중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축제를 준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한 이주자나 이주자 가족들이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이주자들이 카르고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마요르도미아를 선택하는 현상은 오아하카의 다른 마을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된다(Cohen 2001, 962).

공민적 카르고를 맡은 사람은 마을에서 관리로 봉사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 청사 미화원, 정원 관리인, 심부름꾼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포함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직책을 피하려고 한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마을 내에서 지위가 낮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회피하는 까다롭고 힘든 공민적 카르고를 부과하는 것이 보편적인데(Joo 1998, 51-62), 이주자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라 이런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금을 활용하여 이렇게 어렵고 사회적 위신도 낮은 공민적 카르고 대신에 마요르도미아를 담당하면 시간도 적게 들이면서 사회적 위신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주자나 이주자 가족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마요르도미아를 책임지고, 그밖에 마을 행사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기부금을 내면서 마을 내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 내의 주요한 마요르도미아를 담당한 이주자가 마을로 돌아올 경우에는 이들이 이미 마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사회적 위신도 상승하고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메소아메리카 사회에서 성인 남성들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보수를 받지 않고 마을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관습.

이렇게 송금을 배경으로 한 이주자와 이주자 가족들의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이주자에 대한 평가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주자들이 마을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자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주자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 이주자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견해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이주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주자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때에는 마을회의에서 이주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주자 가족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이주로 마을을 비워 오랫동안 마을의 공동토지(terrenos comunales)를 경작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단위의 공동 부역인 테키오(tequio)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수도 등 마을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심지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토지에 세워진 경우에는 거주자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이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또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멕시코로 역이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이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해결하려는 이주자들의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주자와 이주자 가족들은 초기에는 이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접촉했었다. 그러다가 송금을 받기 위해 자주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한층 유대가 강화되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 이주자들이 돈을 멕시코로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멕시코 은행의 이자가 매우 낮고 변화가 심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송금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서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고향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거나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는 다른 이주자들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줄기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돈을 맡기려고 하면 상호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사지에서 생활하는 이주자 가족들이나 역이주자들은 서로 잦은 접촉과 모임을 거치면서 신뢰성을 높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2010년이 되어 활성화되었다. 처음에는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더니 2010년이 되면

5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하게 되었다. 주로 국제노동이주의 경험이 있거나 노동이주자를 둔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향후에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몇몇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최초로 중심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부모를 돌보기 위해 1998년에 마을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자신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카르고와 공동 토지, 테키오 등의 문제로 부모가 마을 관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다가 모임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이주자 가족들은 생일이나 축제 등의 행사가 있을 때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우의를 다지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주자 모임을 마을 사람들은 ‘엘 노르테’(El Norte)라고 불렀다. 마을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주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마을에서 중요한 지위를 역임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이주자들이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자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공개적인 활동은 자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주에 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등장으로 마을 내의 정치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주자 모임은 카르고나 테키오, 공동토지와 주거지 문제 등 이주자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중점적으로 관여한다. 한편으로는 할로윈 파티를 여는 등 미국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북미의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마을의 천주교회 대신에 외부의 개신교회에 나가는 등 자신들의 문화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기도 한다. 그밖에 미국으로 노동이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문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국경 강화정책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은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 모임이 마을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2015년에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역이주했으며 이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무니시피오 의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주자 모임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는 마을 총회에서도 이주자나 이주자

가족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카르고 제도를 통해 법률고문 등 마을의 관리나 전기위원회, 식수위원회, 보건진료소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회, 상점위원회, 삼림경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천주교회 내부에서도 이주자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외부사회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의 행사를 주도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이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노동이주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 것은 과거와 달리 마을의 경제활동에서 이주자 가구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대체로 송금이 들어와서 농촌지역에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이질적인 요소가 증가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퍼진다.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송금의 역할과 의미는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Cohen 2004, 104). 실제로 노동이주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해 농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품을 파는 상점을 열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오아하카 시내에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하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졌다고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오아하카 시내에 나가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여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듯 20세기 말과는 달리 이주자나 이주자 가구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살려 마을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경제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카시케(cacique)³와 같은 과거의 마을 유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마을 내부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3 전통적으로 원주민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장악하던 지역 내의 지도자.

국제노동이주와 사회의 정치구조 변화

이주자 모임이 자리 잡으면서 국제노동이주에 관련된 가구의 구성원들과 이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마을 내부의 정치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마을의 정치적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가끔 기존의 정치세력과 부딪치게 되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해 노력하면서 필연적으로 카시케라 불리는 오랜 전통을 지닌 기존의 엘리트층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 등의 경제적 자원과 천주교회, 카르고 제도 등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정치경제적 엘리트인 카시케들은 국제노동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의 카시케들은 이주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환경은 바뀌었다.

이주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카시케가 속한 가구의 사람들마저 이제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국제노동이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경향이 발생하면서 마을 내부에서 무조건 이주자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부의 마을 사람들은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체로 교육수준도 높고 광범위한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가서 경제활동을 했던 이주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함께 들여오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Cohen 2004, 104). 조사지에서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서, 이제는 미국의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지금은 위성접시를 설치하여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하는 가구도 많아졌다.

이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엘리트의 출현과 더불어 계층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주는 가난한 지역에서는 쉽게 얻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송금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사회분화나 사회적 층화 현상을 강화하기 쉽다(Burrell 2005, 20). 조사지에서도 이주가 흔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가 계층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지금은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계층의 상승이동에 작용하게 되었다. 가족 규모가 크고 젊은 가구원

을 많이 두어 소유한 자원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한 가구에서는 국제노동이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전략을 선택했다. 과거에는 소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의 수가 많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했고, 불가피하게 경제적으로도 하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노동이주를 통해 경제적 상황을 빠른 시간에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제노동이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주가 확산되고 정보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노동이주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주에 참여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달라질 수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마을의 상층 계층의 직업이 농업에서 점차 상업 및 축산업으로 바뀌었다. 마을 내에서 소유한 토지가 전혀 없어서 농업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오아하카 시내에 가서 막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그동안 번 돈을 이용하여 마을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 마을 사람의 사례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1995년에 미국으로 가서 10년 간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아들 2명과 딸 2명도 미국으로 떠났고, 현재는 자녀들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자녀들의 송금을 더해서 집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사고 문구점도 열었다. 지금은 자녀들이 월평균 2,000달러 정도를 송금으로 보낸다. 생활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한다.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마을에서도 살기가 어려웠고 남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러나 지금은 남들 못지않게 먹고 살 형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서 좋다. 카르고도 예전에는 심부름꾼, 교회관리인, 마을 경찰, 행정 서기 등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힘든 일만 맡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무니시피오의 행정위원(regidor), 법률고문(sindico) 등을 맡아서 일도 수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좋다. 지금은 마을 총회에서 발언도 자주하고 주요한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처음에 송금으로 돈을 조금 모았을 때에는 마을을 떠나 오아하카 시내에 나가서 살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가 편하고 생활비도 적게 든다는 판단에서 계속 살고 있다”(Mauricio, 58세).

이주자 모임에 관련된 사람들이 마을의 정치적 영역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기존의 카시케들과 여러 측면에서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카시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이주를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무니시피오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송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사회의 지위체계가 흔들리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다(Ballard 2005, 108). 외부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경제적 능력도 보유한 이주자 가족이나 역이주자들은 기존의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한편, 이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로운 엘리트들은 마을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카르고나 테키오 등의 의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면제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공동토지의 경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경작하지 않아도 언젠가 토지를 경작했던 이주자들이 돌아온다고 약속하면 빼앗지 말자고 주장한다. 종종 마을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이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의 전통적 카시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들의 송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이주자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한 마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이 마을에서 그동안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큰소리쳤던 카시케들은 고리타분한 생각에 사로잡혀 전통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무지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마을 총회에서든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 마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야유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카시케들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 카시케들은 자신들의 농업활동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을처럼 비도 적게 오고 토지도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야 한다. 상업이나 제조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을을 위해 바람직하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국제노동이주에 관여되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주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이 먹은 카시케들은 이런 일을 할 줄 모른다”(Eduardo, 55세).

이런 문제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이 소유한 상당한 토지나 가축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던 카시케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주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또 언제든지 마을의 통합을 위해 봉사하려는 생각이 부족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마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봉사, 기부를 통해 지위도 얻고 위신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천수답의 사유 토지를 소유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무니시피오 의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카시케 중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일을 하러 다니면서 많은 것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마을에 돈이 들어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해 무지하고 교양도 없던 가난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지나치게 으스댄다. 이주자들이 돈을 벌어 오니 마을 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덩달아 일꾼의 임금도 오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농사를 짓기가 더욱 힘들다. 게다가 미국을 따라하는 저질 문화가 퍼지고 술과 마약, 매춘 등 범죄 행위가 확산되는 일도 많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 농업에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고, 삼림자원의 개발에도 무관심하다. 마을 소유의 산림지역에 과거에 벌목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나무가 많이 자라 목재생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어 배가 부른 사람들은 힘들게 목재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전에 목재생산을 할 때에 사냥은 트럭도 3대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마을총회에서 하면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큰 소리로 목재생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이주만 부추겨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생각은 안하고 미국으로 가기만 원한다. 전통적인 축제도 소홀히 해서 과거처럼 아름다운 장식이나 거리행진은 드물어졌고, 음식도 미국에서 먹는 것을 그대로 제공하는 등 성의가 없다”(Jacinto, 72세).

이런 급격한 정치구조의 변화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은 다소 긍정적이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소수의 카시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의 카시케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무니시피오를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목재생산을 할 때에도 카시케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Joo 2015, 89-96).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기존의 카시케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물론 새로운 신흥세력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갑자기 경제적 형편이 개선된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며, 마을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의 정치적 행위에 참석할 수 있는 변화가 촉진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카시케 일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다. 말이라도 한번 잘못하거나 카시케들의 눈에 어긋나면 버티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젊은이들도 예전처럼
무조건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olando, 31세).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국제노동이주로
인해 송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정치경제적 구조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
가 발생한다. 이런 변화는 과거에 존재했던 정치경제적 관행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등장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듯 이주와 송금을 계기로 나타난 새로운 엘리트 집단은 카시케 등
과거에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계층과 경쟁하거나 대립할 수 있다.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 국제노동이주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
하면 농촌지역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결론

조사지의 사례에서 보면 해외로부터 보내진 송금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농촌지역은
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아서 일정한 규모의 송금의 유입으로 사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가난해서 마을 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일부의 사람들이 송금으로 형성된 부를 활용하여
마을 내부에서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도 가구의 구성원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돈을 벌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류의 가구는 과거부터 누렸던 사회정치적 지위를
계속해서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넓은 토지를 보유하면서 오랫동안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카시케들은 농업활동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이주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따라서 전통적 카시케들의 정치적 권위의
약화와 과거에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하층계급에 속하다가 송금을
계기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킨 사람들의 등장이 마을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실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구조를 활용하여 마을 내부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제노동이주 가구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주를 통하여 마을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지를 다지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얻어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까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조직적인 행위로 기존의 카시케들과 맞서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주와 송금은 멕시코 농촌지역 마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치구조를 바꾸어 놓고 있다.

전통적으로 멕시코 남부지역의 농촌사회는 아직까지 원주민 사회의 전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특히 정치구조 분야에서 보면, 마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각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카시케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정치적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노동이주의 결과로 경제활동의 범위가 마을에서 다른 국가로 넓어지고, 송금으로 얻는 경제적 부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두드러지게 확산되었다. 더 이상 카시케나 마을 내부의 정치경제 구조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외부사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농촌사회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농촌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제도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멕시코는 무니시피오 의장의 선출 과정에 정당의 추천을 요구하는 민주적 선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사회의 전통을 인정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카르고 제도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오아하카의 무니시피오는 카르고 제도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⁴ 그러나 국제노동이주를 통해 부를 획득한 신흥 엘리트들은 카르고 제도를 통한 지도자의 선출보다 정당의 지지를 받는 직접 선거를

4 2018년 오아하카 주의 무니시피오 의장 선거에서 전체 570개의 무니시피오 중에 153개가 정당정치에 의해 선출되었고, 나머지 417개는 카르고 제도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했다.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오아하카나 다른 주에서 카르고 제도를 이용한 지도자의 선출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런 현상은 향후에 지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노동이주로 인한 송금의 유입은 국제노동이주자가 많은 멕시코나 중미지역의 사회에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costa, Pablo, Pablo Fajnzylber and J. Humberto López(2008), “How Important are Remittances in Latin America?,” in Pablo Fajnzylber and J. Humberto López(eds.), *Remittances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p. 21-49.
- Adams, Richard H. Jr. and John Page(2005), “Do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33, No. 10, pp. 1645-1669.
- Ballard, Roger(2005), “Remittanc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India and Pakistan,” in Samuel Munzele Maimbo and Dilip Ratha(eds.), *Remittances: Development Impact and Future Prospect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Binford, Leigh(2003), “Migrant Remittances and (Under)Development in Mexico,”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23, No. 3, pp. 305-336
- Bracking, Sarah(2003), “Sending Money Home: Are Remittances Always Beneficial to Those Who Stay Behind?,”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5, pp. 633-644.
- Burrell, Jennifer L.(2005), “Mig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of Fiesta Customs in Todos Santos Cuchumatán, Guatemal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2, No. 5, pp. 12-32.
- Calderón, Cesar, Pablo Fajnzylber and Humberto Lopez(2008), “What i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mittances on Poverty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 pp. 89-114.
- Chierici, Rose-Marie(2004), “Caribbean Migr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ransnationalism, Race, and Ethnic Identity,” *Reviews in Anthropology*, Vol. 33, No. 1, pp. 43-59.
- Chiu, William and Marisol Raquel Gutiérrez(2007), “Migration and Political Involvement?,” in Wayne A. Cornelius and Jessa M. Lewis(eds.), *Impacts of Border Enforcement on Mexican Migration*, La Jolla, CA: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UCSD, pp. 149-162.
- Cohen, Jeffrey H.(2001), “Transnational Migration in Rural Oaxaca, Mexico: Dependency, Development, and the Household,”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03, No. 4, pp. 954-967.
- _____(2004), *The Culture of Migration in Southern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ombes, Jean-Louis and Christian Ebeke(2011), “Remittance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sta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39, No. 7, pp. 1076-1089.
- Eversole, Robyn(2005), “‘Directed to the Poor’ Revisited: Migrant Remittances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289-322.

- Fajinzylyber, Pablo and J. Humberto López(2008), "The Development Impact of Remittances in Latin America," in Pablo Fajinzylyber and J. Humberto López(eds.), *Remittances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p. 1-19.
- Gammage, Sarah(2006), "Exporting People and Recruiting Remittances: A Development Strategy for El Salvador?,"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6, pp. 75-100.
- Glick, Jennifer E.(1999), "Economic Support from and to Extended Kin: A Comparison of Mexican Americans and Mexican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3, No. 3, pp. 745-765.
- Gmelch, George(1992), *Double Passage: The Lives of Caribbean Migrants Abroad and Back Hom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amilton, Sarah, Billie R. DeWalt, and David Barkin(2003), "Household Welfare in Four Rural Mexican Communities: The Economic and Social Dynamics of Surviving National Crises,"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Vol. 19, No. 2, pp. 433-462.
- Joo, Jong-Taick(1998), "Political Participation in Rural Mexico: Political Behaviors and Political Culture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1, No. 1, pp. 39-84.
- _____ (2007),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Rural Sociocultural Changes in Mexico,"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Vol. 40, No. 2, pp. 93-124.
- _____ (2009),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Mexico,"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2, No. 1, pp. 99-128.
- _____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Use of Remittances in the Local Sociocultural Structure in Oaxaca, Mexico,"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5, No. 4, pp. 25-48.
- _____ (2013),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Latin America and Transnational Communitie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oul.
- _____ (2015), "Social Changes and Utilization of Common Resources in Rural Mexico," *Iberoamérica*, Vol. 17, No. 2, pp. 69-117.
- Malkin, Victoria(2004), "We Go to Get Ahead: Gender and Status in Two Mexican Migrant Communiti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1, No. 5, pp. 75-99.
- Martin, Philip, Manolo Abella and Christiane Kuptsch(2006), *Managing Labor Migr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Niimi, Yoko and Çağlar Özden(2008),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Latin America: Patterns and Determinants," in Pablo Fajinzylyber and J. Humberto López(eds.), *Remittances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p. 51-86.
- Parrado, Emilio A.(2004), "U.S. Migration, Home Ownership, and Housing Quality," in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63-85.

- Pérez, Ricardo(2005), “Unbound Households; Trajectories of Labor, Migration, and Transnational Livelihoods in (and from) Southern Puerto Rico,”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49-75.
- Sowell, Thomas(1996), *Migrations and Cultures: A World View*, N.Y.: Basic.
- The World Bank(2008),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0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rager, Lillian(2005), “Introduction: The Dynamics of Migration,”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1-45.
- Wong, Rebeca, Alberto Palloni and Beth J. Soldo(2007), “Wealth in Middle and Old Age in Mexico: The Rol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1, No. 1, pp. 127-151.

Article Received: 2019. 10. 04.
Revised: 2019. 11. 12.
Accepted: 2019. 11. 15.